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하나님 말씀의 매체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머리말과 12장 「하나님 말씀의 매체」. 본문 쪽 표시로 보아 약 147~152쪽이며, 13장은 153쪽에서 시작한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앞 장들(8~11장)에서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 소통'이라는 결론에서 출발한다. 그다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말씀하실 때 쓰시는 통로, 곧 '매체'를 묻는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거의 언제나 창조된 매체를 쓰신다고 본다. 시내 산의 음성처럼 가장 직접적인 계시도 공기와 히브리어라는 매체를 거쳤다는 것이다. 이어서 매체를 사건·말씀·사람 셋으로 나누고, 이 셋이 서로 맞물려 서로를 해석한다고 설명한다. 결론은 이렇다. 매체는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르신 도구다. 그러니 '사람이 전했으니 틀릴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 절별 정리

※ 이 장 본문에는 장절 표기가 거의 없다. 저자는 시내 산이나 모세 같은 사건을 이름으로만 언급한다. 아래 표에서 '보충'이라고 표시한 구절은 그 사건과 주장에 해당하는 본문을 정리자가 찾아 붙인 것이다.

📜 1. 4부의 자리 —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 마음으로

프레임은 책 전체를 세 관점으로 짰다. 2부는 '상황적 관점'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적 환경을 다루었다. 3부는 '규범적 관점'으로, 성경에 근거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의했다. 4부는 '실존적 관점'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떻게 우리 내면에 닿는지를 다룬다. 다만 프레임은 4부도 결국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묻기 때문에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인다. 세 관점은 칸막이가 아니라 같은 진리를 보는 세 방향이라는 그의 관점주의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1. 2부 상황, 3부 규범, 4부 실존 관점
2. 4부 주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는 길
3. 실존을 다뤄도 기준은 성경(규범)이다

> —
> 4부의 구조를 안내하는 머리말이라 인용 구절이 없다

📜 2. 매체란 무엇인가 — 매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먼저 앞 장들의 결론을 다시 묶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니신 속성이다. 동시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피조물과 실제로 주고받는 소통 전체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소통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의 '주되심', 곧 다스리는 능력과 권위와 인격적 임재를 보여 준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엇을 타고 우리에게 오는가? 프레임은 매체를 '말하는 이의 말이 듣는 이의 마음에 닿게 하는 수단'으로 정의한다. 요즘 사람들은 방송이나 영화 같은 미디어가 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프레임은 문제가 매체가 아니라 그것을 쓰는 타락한 인간에게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 자신이 매체를 쓰신다는 사실이 매체를 바르게 쓰는 길이 있다는 증거다.

1. 매체: 말이 마음에 닿게 하는 수단
2.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인격적 소통
3. 소통에는 능력·권위·임재가 드러난다
4. 문제는 매체가 아니라 타락한 사용자다

> **히브리서 1:1-2**
> (보충)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 곧 여러 매체가 있다는 성경의 큰 틀
>
>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 3. 하나님은 창조된 매체를 쓰신다

삼위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는 창조된 매체가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하실 때는 거의 항상 이런저런 매체를 쓰신다. 시내 산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 때나 모세와 대면해 말씀하셨을 때를 우리는 매체 없는 '직접 계시'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공기를 타고 사람들의 귀와 뇌에 전달되었다. 또 하나님은 삼위 사이의 신적 언어가 아니라 피조물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 프레임은 하나님이 보거나 듣거나 추론하는 과정 없이 메시지를 마음에 곧바로 넣으실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성령이 계시가 참되다고 우리를 설득하실 때 그렇게 하실지도 모른다고 본다. 그러나 매체 없는 계시를 성경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신학은 성경이 보여 주는 계시 방식에 머물러야 하므로, 그는 논의를 창조된 매체로 한정한다.

1. 삼위 사이 대화에는 매체가 필요 없다
2. 사람에게는 거의 항상 매체를 쓰신다
3. 시내 산 음성도 공기와 히브리어를 거쳤다
4. 즉각적 계시는 가능하나 성경적 증명은 어렵다
5. 신학은 성경이 보여 준 방식에 머문다

> **출애굽기 20:1**
> (보충)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건, 프레임의 첫 예
>
>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 **신명기 4:12**
> (보충) 형상 없이 '음성'만 들렸다는 것. 소리라는 매체가 있었다
>
>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신명기 5:4

(보충) “대면하여” 말씀하신 시내 산. 직접 계시도 언어와 소리를 거쳤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민수기 12:8

(보충) 모세와 대면해 말씀하신 경우. 프레임의 둘째 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5

(보충) 성령이 말씀을 확신시키는 일. 프레임이 열어 둔 '즉각적 설득'과 닿는 자리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 4. 세 가지 매체 — 사건, 말씀, 사람

프레임은 계시의 매체를 사건, 말씀, 사람 셋으로 나눈다. 이 셋은 대체로 하나님의 주되심의 세 측면과 짝을 이룬다. 다스리는 능력은 사건을 일으키고, 말씀은 권위를 지니며, 사람은 주님의 인격적 임재를 몸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그는 이 짝을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예컨대 사건은 다스림만 보여 주고 권위나 임재는 보여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 틀린다. 하나님은 모든 매체에서 주되심의 모든 측면을 드러내신다. 성경은 모든 계시를 매체를 거쳐 온 것으로, 동시에 최고의 능력·권위·임재를 지닌 것으로 다룬다.

1. 매체는 사건, 말씀, 사람 셋이다
2. 사건-능력, 말씀-권위, 사람-임재 짝

히브리서 1:1-2

(보충) 선지자들(사람·말씀)과 아들(인격)로 말씀하셨다. 세 매체가 한 계시 안에 있다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14

(보충) '사람' 매체의 정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재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5. 세 매체는 서로 얽혀 서로를 해석한다

세 매체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관점처럼 서로 맞물린다. 우리는 사건을 말씀, 곧 사건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말을 통해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일 자체도 하나의 사건이다. 말씀이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사건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 그리고 그 사건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며,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 안에서 일한다. 그래서 셋은 서로의 구성 요소가 된다. 사건은 말씀의 도움 없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어·헬라어와 고대 역사·문화를 알아야 온전히 이해된다. 이 지식을 얻으려면 성경 밖의 연구도 필요하다. 사건과 말씀은 계시의 도구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는 알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1. 사건은 말씀(내러티브)을 통해 안다
2. 말씀을 주시는 일도 하나의 사건이다
3. 사건을 전하지 않는 말씀은 가치가 없다
4. 원어·역사·문화 연구가 이해를 돕는다

고린도전서 15:3-4

(보충)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으로 해석된다

> [3]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가복음 24:27

(보충)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건(자신의 고난)을 말씀(모세와 선지자)으로 풀어 주신다

>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 6. 매체는 골라 믿을 수 없고, 장애물도 아니다

세 매체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고르신 계시에 꼭 필요한 요소다. 그러니 셋 중 무엇을 듣고 믿고 순종할지 우리가 골라서는 안 된다. 말씀을 의심하면 그 말씀이 전하는 사건과 그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의심하게 된다. 매체가 계시의 능력·권위·임재에서 비켜 서 있다는 주장도 틀렸다. 매체와 계시는 떼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매체에 흠이 있다면,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를 되찾을 길이 없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한계나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전하려는 것을 못 전하시는 분이 아니다. 매체는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의 주의를 붙잡으려고 직접 고르신 도구다.

1. 매체 중 무엇을 믿을지 고를 수 없다
2. 말씀을 의심하면 사건·사람도 의심하게 된다
3. 매체에 흠이 있으면 진리를 되찾을 수 없다
4.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을 막지 못한다
5. 매체는 하나님이 고르신 도구다

데살로니가전서 2:13

(보충) 사람의 말로 전해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매체와 계시가 하나다

>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계시의 매체는 계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 7. 사람이 썼으니 틀릴 수 있다? — 여섯 가지 답

흔히 이렇게 주장한다. 선지자·사도·성경 기자를 통한 계시에는 신적 특성과 함께 인간적 특성도 있다. 사람은 실수하므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도구 때문에 계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프레임의 답은 여섯 가지다.

1. 사람이 반드시 틀리는 것은 아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때로 참말을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의 인간됨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오류에서 지키실 수 있다.

2. 인간됨이 반드시 오류를 낳는다면, 성경의 모든 계시가 오류투성이일 것이다. 모든 계시가 인간 매체를 거치기 때문이다. 각주에 따르면 시내 산 음성조차 인간의 언어를 썼다. 그런 극단을 주장한 사람은 없다.

3.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셨지만 오류가 없으셨다.

4. 8~11장에서 본 계시의 능력·권위·임재에 관한 성경 말씀 대부분은 인간 매체로 전해진 계시에 대한 것이다. 거기에는 인간 매체가 신적 성격을 깎아내린다는 암시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가능성을 배제한다.

5.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말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그의 다른 글 「하나님과 성경 언어」로 답한다.

6. 하나님 말씀의 인간적 특성은 장애가 아니라 소통을 이루는 완전함이다. 하나님은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사도·기자들이 자기 말로 쓴 그 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의심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1. 사람이 반드시 틀리는 것은 아니다
2. 인간됨=오류라면 모든 계시가 틀린다
3.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나 오류가 없으셨다
4. 성경은 인간 매체의 계시도 권위 있다 한다
5. 인간적 특성은 소통을 위한 완전함이다

> **베드로전서 2:22**
> (보충) 셋째 답: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
>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 **히브리서 4:15**
> (보충) 셋째 답: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 **예레미야 1:9**
> (보충) 여섯째 답: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사람의 입에 두셨다
>
>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 **베드로후서 1:20-21**
> (보충) 넷째·여섯째 답: 사람이 말했으나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
>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보충) 둘째 답의 각주: 시내 산의 가장 직접적인 계시도 인간 언어와 소리를 거쳤다

>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매체를 하나님이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 장애물로 간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

매체
말하는 이의 말이 듣는 이의 마음에 닿게 하는 통로. 이 장에서는 사건·말씀·사람을 말한다.

주되심(주권)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프레임은 이것을 다스리는 능력, 의미 있는 권위, 인격적 임재로 설명한다.

관점주의
같은 진리를 규범(하나님의 기준)·상황(세상과 환경)·실존(나의 내면)이라는 세 방향에서 보는 프레임의 방법.

창조된 매체
하나님이 만드신 것, 곧 공기·소리·사람의 언어·사람 자체로 이루어진 통로.

중간적(직접) 계시

언어계시

사건이나 사물이 아니라 말(언어)로 주어지는 계시.

내러티브

사건을 순서대로 들려주는 이야기. 성경은 사건을 내러티브로 전한다.

인간적 특성(성경의 인간성)

성경이 사람의 언어·문체·문화 안에서 쓰였다는 사실.

무오성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참되어 틀린 데가 없다는 성질. 이 장의 '오류가 없다'는 결론이 이것과 이어진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거의 언제나 창조된 매체를 쓰신다. 가장 직접적인 계시도 예외가 아니다.
- 매체는 사건·말씀·사람 셋이다. 각 매체에 하나님의 능력·권위·임재가 다 담기며, 셋은 서로를 이루고 서로를 해석한다.
- 매체와 계시는 떼어 낼 수 없다. 매체 중 골라 믿을 수 없고, 매체에 흠이 있다면 진리를 되찾을 길도 없다.
- 인간적 특성은 오류의 원인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완전함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 안에 자신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두셨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4편 ·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 사건, 음성, 선지자와 사도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